한국치위생과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J Dent Hyg Sci Vol. 16, No. 6, 2016, pp.488-494
https://doi.org/10.17135/jdhs.2016.16.6.488

RESEARCH ARTICLE

치과위생사의 국가 실기시험에 대한 인식

고다경 · 배성숙†
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The Dental Hygienists' Perception of the National Practical Examination

Da-Kyung Ko and Sung-Suk Ba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anseo University, Seosan 31962, Korea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dental hygienists' perception of the current national practical examination. This research was performed using 199 self-reported surveys answered by professors of dental hygiene studies and clinical dental hygienist.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s, and analysis of variance were performed by using IBM SPSS Statistics ver. 20.0. The results revealed that many of the respondents consider the current national practical examination to be neutral. They did not think that the current national practical examination questions are useful for assessing occupation-centric integrated clinical practice ability and counseling techniques for patient intervention. The professors of dental hygiene studies believed that among the research tasks required as mentioned in the national practical examination questions, dental polishing and tooth brushing education are of paramount importance, whereas clinical dental hygienists believed that ultrasonic scaling is the most important ($p<0.05$). Most of the professors of dental hygiene studies reported that they conducted skills education for dental polishing and tooth brushing education, while most of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s reported that tasks actually performed in the clinic included impression taking, model fabrication, ultrasonic scaling, and explaining treatment precautions ($p<0.05$). Therefore, these tasks can be effectively carried out with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dental hygienist practical examination.

Key Words: Dental hygienists, Examination, Examination questions

서 론

임상실무능력을 단계별로 판단하기 위해 Dreyfus 모델을 이용하여 간호사의 실무능력 및 판단능력을 측정한 결과 어느 한 분야에서 숙련된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 그러나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임상진료실무 및 협조업무는 대부분의 4년 이하의 경력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고[2], 경력이 많아지고 책임이 증가할수록 상담 및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3]. 치과위생사 업무 중요도 평가에서도 임상근무경력 3년 미만은 보존, 보철치료 등을 포함한 진료협조업무를 중요시해 그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겼고, 임상근무경력 3년 이상은 치과보험청구나 치과경영관리 등의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해당 내용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4]. 즉, 대학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직무능력을 표준화하여 임상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따라 교육목표를 설정하고[5], 졸업 후 낮은 경력의 치과위생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임상실습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평가체계 역시 적절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역시 치과위생사가 임상실무를 담당하는 데 갖추어야 할 최

Received: October 27, 2016, Revised: November 24, 2016, Accepted: November 26, 2016
ISSN 1598-4478 (Print) / ISSN 2233-7679 (Online)

†Correspondence to: Sung-Suk Ba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anseo University, 46-1, Hanseo 1-ro, Haemi-myeon, Seosan 31962, Korea
Tel: +82-41-660-1573, Fax: +82-41-660-1579, E-mail: ssbae@hanseo.ac.kr

Copyright © 2016 by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소한의 지식, 태도, 기술을 측정하여 치과위생사로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이 검증된 국가시험의 문항개발 기준이 필요하며[6], 적절한 치위생 역량 발휘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치위생 교육은 임상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와 연계하여 지식과 기술이 포함된 과제를 다루고 실제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7]. 그리하여 최근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향상 등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안의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8-10].

현재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국가 실기시험은 치석제거와 치석탐지를 위한 치주기구 조작법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이는 응시자 중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것만을 판가름하는 것으로[10], 면허 취득 후 신입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주요 업무는 치석제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진료과목별 수행업무[11]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현장의 치과위생사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고안을 위하여 임상 치과위생사 및 치위생(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현행 국가 실기시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윤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를 거쳐 승인받아 진행되었다(P01-201601-21-005).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및 치위생(학)과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2016년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편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였다. 인터넷 조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에서 개발한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우편조사 총 108부와 인터넷조사 총 98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우편조사에서 불성실한 7부를 제외하고 총 199부(96.6%)의 설문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도구는 '한국의료인 국가시험원의 연구과제인 국가실기시험 장기 개선방향 연구 보고서'[12]를 연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문항으로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직종, 근무지역, 근무분야로 구성하였고, 현행 국가 실기시험에 대한 인식 3문항, 현행 국가 실기시험문항 평가에 대한 인식 5문항, 실기시험 문항으로의 중요성 28개 문항과 임상치과위생사 임상업무 수행여부 및 치위생(학)과 실습교육 수행여부 2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국가 실기시험 문항으로의 중요성은 각각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로 측정하고, 임상치과위생사 임상업무 수행여부와 치위생(학)과 실습교육 수행여부는 '수행한다', '수행하지 않는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지의 임상치과위생사 임상업무 수행여부와 치위생(학)과 실습교육 수행여부 및 실기시험 문항으로의 중요성에 대한 Chronbach's α는 0.957이었다.

3. 분석방법

조사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0.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하였으며, 근무분야에 따른 현행 국가 실기시험에 대한 인식과 현행 국가 실기시험문항 평가에 대한 인식과 임상치과위생사 임상업무 수행여부와 치위생(학)과 실습교육 수행여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하였고, 근무분야에 따른 실기시험 문항으로의 중요도의 차이는 one-way ANOVA로 분석 후 Scheffe test를 사용하여 다중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검정 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 과

1.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성이 96.5% (192명), 남성이 3.5% (7명)로 대부분 여성이었고, 취득한 면허로 치과위생사가 97.5% (194명), 치과의사가 2.5% (5명)로 대부분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하였다. 근무지역은 인천 및 경기도가 28.1% (56명)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6% (43명), 충청도 20.1% (40명) 순이었다. 근무분야에 따라 치위생(학)과 교수 50.8% (101명), 임상치과위생사 49.2% (98명)였다.

2. 현행 국가 실기시험에 대한 인식

현행 국가 실기시험에 대한 인식은 Table 2와 같다.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교수 및 임상 치과위생사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정성에 대해서는 두 그룹 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치위생(학)과 교수 41.6% (42명), 임상치과위생사 56.1% (55명)에서 '보통이

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5$).

3. 국가 실기시험 문항에 대한 평가

현행 국가 실기시험 문항이 '기구조작능력'과 '직무중심의 종합적인 임상실기능력',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포괄치위생과정능력', '환자 중재의 상담능력'을 포함하는 필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Table 3과 같다. '기구조작능력'과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포괄치위생과정능력'은 교수와 임상치과위생사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무중심의 종합적인 임상실기능력'과 '환자 중재의 상담능력'에 대해서는 두 그룹 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0.05$). '직무중심의 종합적인 임상실기능력' 평가에서 교수는 36.6% (37명)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임상치과위생사는 56.1% (55명)가 '평가할 수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환자 중재의 상담능력' 평가 영역에서는 각각 교수 72.3% (73명), 임상치과위생사 72.4% (71명)로 '평가할 수 없다'가 높은 응답을 보였다($p<0.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99)

Variable	Frequency (n, %)
Gender	
Female	192 (96.5)
Male	7 (3.5)
Occupation	
Dental hygienist	194 (97.5)
Dentist	5 (2.5)
Area	
Seoul	43 (21.6)
Incheon and Gyeonggi-do	56 (28.1)
Chungcheong-do	40 (20.1)
Gangwon-do	14 (7.0)
Jeolla-do	23 (11.6)
Gyeongsang-do	23 (11.6)
Duty place	
University or college	101 (50.8)
Dental clinic	98 (49.2)

4. 국가 실기시험 문항으로의 중요성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 중 구체적인 28가지 업무를 치과위생사 국가 실기시험의 문항으로의 중요성은 Table 4와 같다. 치위생(학)과 교수는 치면연마와 칫솔질 교육이 99.0% (100명)로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인상채득, 치주기구조작, 치면열구전색이 98.0% (99명) 순으로 나타났다($p<$

Table 2. Recognition of the National Practical Exam by Duty Place

Variable	Duty place						χ^2	p-value
	University or college (n=101)			Dental clinic (n=98)				
	Positive	Neutral	Negative	Positive	Neutral	Negative		
Necessity	85 (84.2)	8 (7.9)	8 (7.9)	70 (71.4)	19 (19.4)	9 (9.2)	8.243	0.051
Appropriacy	36 (35.6)	39 (38.6)	26 (25.7)	28 (28.6)	52 (53.1)	18 (18.3)	5.347	0.118
Fairness	39 (38.6)	42 (41.6)	20 (19.8)	35 (35.7)	55 (56.1)	8 (8.2)	7.107	0.029

Values are presented as n (%).
The data were analysed by chi-square test, $p<0.05$.

Table 3. Evaluation of the Current National Practical Exam Items

Variable	Duty place						χ^2	p-value
	University or college (n=101)			Dental clinic (n=98)				
	Positive	Neutral	Negative	Positive	Neutral	Negative		
Instrumentation capability	92 (91.1)	9 (8.9)	0	87 (88.8)	10 (10.2)	1 (1.0)	1.147	0.563
Clinical practical skill	30 (29.7)	37 (36.6)	34 (33.7)	15 (15.3)	28 (28.6)	55 (56.1)	11.158	0.004
Problem-solving skill	18 (17.8)	26 (25.7)	57 (56.4)	9 (9.2)	32 (32.7)	57 (58.2)	3.576	0.167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management	18 (17.8)	28 (27.7)	55 (54.5)	11 (11.2)	32 (32.7)	55 (56.1)	1.912	0.385
Counseling technique	14 (13.9)	14 (13.9)	73 (72.3)	5 (5.1)	22 (22.4)	71 (72.4)	6.025	0.049

Values are presented as n (%).
The data were analysed by chi-square test, $p<0.05$.

Table 4. The Importance of the National Practical Examination Items by Duty Place

Task	Duty place						p-value
	University or college (n=101)			Dental clinic (n=98)			
	Positive	Neutral	Negative	Positive	Neutral	Negative	
Medical history	90 (89.1)	11 (10.9)	0	49 (50.0)	40 (40.8)	9 (9.2)	<0.001
Dental history	95 (94.1)	6 (5.9)	0	54 (55.1)	35 (35.7)	9 (9.2)	<0.001
Medical record	98 (97.0)	3 (3.0)	0	59 (60.2)	29 (29.6)	10 (10.2)	<0.001
Vital sign	93 (92.1)	8 (7.9)	0	45 (45.9)	37 (37.8)	16 (16.3)	<0.001
Right-angle technique	91 (90.1)	10 (9.9)	0	61 (62.2)	27 (27.6)	10 (10.2)	<0.001
Bisecting-angle technique	93 (92.1)	8 (7.9)	0	76 (77.6)	20 (20.4)	2 (2.0)	0.012
Radiograph developing	88 (87.1)	13 (12.9)	0	30 (30.6)	27 (27.6)	41 (41.8)	<0.001
Radiograph film array	85 (84.2)	16 (15.8)	0	30 (30.6)	25 (25.5)	43 (43.9)	<0.001
Impression	99 (98.0)	2 (2.0)	0	77 (78.6)	19 (19.4)	2 (2.0)	<0.001
Modeling	98 (97.0)	3 (3.0)	0	71 (72.5)	22 (22.4)	5 (5.1)	<0.001
Fixed instrument grinding	94 (93.1)	7 (6.9)	0	31 (31.6)	40 (40.9)	27 (27.5)	<0.001
Fixed scoch grinding	93 (92.1)	8 (7.9)	0	30 (30.6)	43 (43.9)	25 (25.5)	<0.001
Ultrasonic scaling	98 (97.0)	3 (3.0)	0	85 (86.7)	13 (13.3)	0	0.008
Periodontal instrumentation	99 (98.0)	2 (2.0)	0	73 (74.5)	22 (22.4)	3 (3.1)	<0.001
Crown polishing	100 (99.0)	1 (1.0)	0	66 (67.3)	28 (28.6)	4 (4.1)	<0.001
TBI	100 (99.0)	1 (1.0)	0	77 (78.6)	19 (19.4)	2 (2.0)	<0.001
Fluoride	98 (97.0)	3 (3.0)	0	57 (58.2)	35 (35.7)	6 (6.1)	<0.001
Sealant	99 (98.0)	2 (2.0)	0	65 (66.3)	30 (30.6)	3 (3.1)	<0.001
Rubber dam	97 (96.0)	4 (4.0)	0	56 (57.1)	32 (32.7)	10 (10.2)	<0.001
Tofflemire	91 (90.1)	10 (9.9)	0	51 (52.0)	38 (38.8)	9 (9.2)	<0.001
Gingival retraction	83 (82.2)	18 (17.8)	0	61 (62.3)	30 (30.6)	7 (7.1)	0.001
Temporary crown	95 (94.1)	6 (5.9)	0	72 (73.5)	22 (22.4)	4 (4.1)	<0.001
Temporary filling	91 (90.1)	10 (9.9)	0	50 (51.0)	32 (32.7)	16 (16.3)	<0.001
Temporary cement	77 (76.2)	24 (23.8)	0	61 (62.2)	24 (24.5)	13 (13.3)	0.001
Treatment permit write	84 (83.2)	17 (16.8)	0	60 (61.2)	29 (29.6)	9 (9.2)	<0.001
Precaution explain	90 (89.1)	11 (10.9)	0	68 (69.4)	21 (21.4)	9 (9.2)	0.001
Orthodontic wire operating	60 (59.4)	41 (40.6)	0	51 (52.0)	32 (32.7)	15 (15.3)	<0.001
Sterilization	98 (97.0)	3 (3.0)	0	71 (72.5)	16 (16.3)	11 (11.2)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 (%).
The data were analysed by one way ANOVA test, $p<0.05$.

0.05). 임상치과위생사의 치과위생사 국가 실기시험의 문항으로 중요한 업무는 초음파 치석제거가 86.7% (85명)로 높았으며, 이어 인상채득 및 칫솔질 교육이 78.6% (77명) 순으로 나타났다($p<0.05$).

5. 업무 수행여부 및 실습교육수행여부

치과위생사의 주요 28가지 업무 중 우리나라 치위생(학)과에서 실습교육의 실시여부 및 임상치과위생사의 수행여부는 Table 5와 같다. 치위생(학)과 교수의 실습교육에 대해 치면연마 및 칫솔질 교육에 대해 교육을 '한다'는 응답이 99.0% (100명)로 많았으며, 인상채득과 치주기구조작, 치면열구전색이 98.0% (99명) 순으로 나타났다($p<0.05$). 임상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인상채득, 모형제작, 초음파 치석제거, 진료 주의사항 설명이 99.0% (97명)로 많이 수행하고 있었고, 진료기록부 작성과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기구세척이 98.0% (96명) 순으로 나타났다($p<0.05$).

고 찰

치위생 교육은 치과위생사가 임상현장에서 실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13]. 그러나 대부분 전문적 이론 및 기술 습득에만 국한되어 있어 현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나, 판단력, 의사결정과 같은 사고력을 육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14]. 기존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따라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대학교육과정과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량기반

Table 5. Professor of Dental Hygiene Practice Education and Clinical Dental Hygienist Job Performance

Task	Duty place				p-value
	University or college (n=101)		Dental clinic (n=98)		
	Yes	No	Yes	No	
Medical history	90 (89.1)	11 (10.9)	92 (93.9)	6 (6.1)	<0.001
Dental history	95 (94.1)	6 (5.9)	91 (92.9)	7 (7.1)	<0.001
Medical record	98 (97.0)	3 (3.0)	96 (98.0)	2 (2.0)	<0.001
Vital sign	93 (92.1)	8 (7.9)	55 (56.1)	43 (43.9)	<0.001
Right-angle technique	91 (90.1)	10 (9.9)	75 (76.5)	23 (23.5)	<0.001
Bisecting-angle technique	93 (92.1)	8 (7.9)	93 (94.9)	5 (5.1)	<0.001
Radiograph developing	88 (87.1)	13 (12.9)	28 (28.6)	70 (71.4)	<0.001
Radiograph film array	85 (84.2)	16 (15.8)	22 (22.4)	76 (77.6)	<0.001
Impression	99 (98.0)	2 (2.0)	97 (99.0)	1 (1.0)	<0.001
Modeling	98 (97.0)	3 (3.0)	97 (99.0)	1 (1.0)	<0.001
Fixed instrument grinding	94 (93.1)	7 (6.9)	39 (39.8)	59 (60.2)	<0.001
Fixed scoch grinding	93 (92.1)	8 (7.9)	39 (39.8)	59 (60.2)	<0.001
Ultrasonic scaling	98 (97.0)	3 (3.0)	97 (99.0)	1 (1.0)	<0.001
Periodontal instrumentation	99 (98.0)	2 (2.0)	75 (76.5)	23 (23.5)	<0.001
Crown polishing	100 (99.0)	1 (1.0)	94 (95.9)	4 (4.1)	<0.001
TBI	100 (99.0)	1 (1.0)	93 (94.9)	5 (5.1)	<0.001
Fluoride	98 (97.0)	3 (3.0)	80 (81.6)	18 (18.4)	<0.001
Sealant	99 (98.0)	2 (2.0)	70 (71.4)	28 (28.6)	<0.001
Rubber dam	97 (96.0)	4 (4.0)	68 (69.4)	30 (30.6)	<0.001
Tofflemire	91 (90.1)	10 (9.9)	73 (74.5)	25 (25.5)	<0.001
Gingival retraction	83 (82.2)	18 (17.8)	79 (80.6)	19 (19.4)	<0.001
Temporary crown	95 (94.1)	6 (5.9)	92 (93.9)	6 (6.1)	<0.001
Temporary filling	91 (90.1)	10 (9.9)	82 (83.7)	16 (16.3)	<0.001
Temporary cement	77 (76.2)	24 (23.8)	96 (98.0)	2 (2.0)	<0.001
Treatment permit write	84 (83.2)	17 (16.8)	93 (94.9)	5 (5.1)	<0.001
Precaution explain	90 (89.1)	11 (10.9)	97 (99.0)	1 (1.0)	<0.001
Orthodontic wire operating	60 (59.4)	41 (40.6)	67 (68.4)	31 (31.6)	<0.001
Sterilization	98 (97.0)	3 (3.0)	96 (98.0)	2 (2.0)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 (%).
The data were analysed by one-way ANOVA test, $p<0.05$.

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15].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임상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 간의 통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문 역량의 고차원적이며 포괄적인 능력이 요구된다[16]. 이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수기를 이용한 기술에 국한 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여 치위생 교육에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현행 국가 실기시험의 공정성에 대해 치위생(학)과 교수 41.6% (42명), 임상치과위생사 56.1% (55명)가 '보통이다'의 응답이 높았고($p<0.05$), 이는 Nam 등[12]과 Kim 등[17]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국가 실기시험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 실기시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초적인 기구조작 능력'은 '평가할 수 있다'는 응답이 임상치과위생사 88.8% (87명), 치위생(학)과 교수 91.1% (92명)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종합적인 임상실기능력'을 비롯한 '문제해결능력', '포괄치위생과정' 및 '상담기법'과 같은 다른 역량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 실기시험이 '평가할 수 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치과위생사의 국가시험이 치과위생사의 질 검정기능이 부족하다고 조사된 Nam 등[12]과 Kim과 Kim[18]의 연구와 의미를 같이하며 향후에 국가 실기시험 개선 시, 편중된 단일 사고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술기와 치과위생사로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실질적인 임상업무는 주로 진료협조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이 주를 이루고[5] 치과진료협력자로서[19]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임상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 중 '진료 주의사항 설명', '초음파 치석제거', '인상채득', '진료기록부 작성' 순으로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치과위생사의 직무현황을 조사한 Kang[4]과 Shin 등[20]의 연구와 같이 치과위생사는 진료협조 부분에서 다양한 업무를 다빈도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국가 실기시험의 문항으로 중요한 것은 치위생(학)과 교수는 '치면연마'와 '칫솔질 교육'이 99.0% (100명), 임상치과위생사는 '초음파 치석제거'가 86.7% (85명)로 나타나($p<0.05$) 임상에서 수행하는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실기시험에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Park[21]의 연구에서 현행국가 실기시험이 임상활용도가 높지 않은 점을 인식하여 국가 실기시험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초가 된다.

향후 Bae 등[22]의 연구에서와 같이 임상수행 능력을 고려한 역량 기반 치과위생사의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업무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기시험 평가 간의 괴리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실기시험은 각 대학의 교육 및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결과적으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실기시험 개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학)과 교수 및 임상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되어 전체 치과위생사의 인식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국가 실기시험 개선 시 전문인으로의 치과위생사의 필요한 다빈도 업무와 중요한 일(task)을 제시하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실기시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대상은 치위생(학)과 교수 101명(50.8%)과 임상치과위생사 98명(49.2%)이 참여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현행 국가 실기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은 치위생(학)과 교수 41.6% (42명), 임상치과위생사 56.1% (55명)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현행 국가 실기시험이 직무중심의 종합적인 임상 실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치위생(학)과 교수 36.6% (37명)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임상 치과위생사 56.1% (55명)는 '평가할 수 없다'라고 응답하였다($p<0.05$). 또한 환자 중재의 상담기법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치위생(학)과 교수 72.3% (73명), 임상 치과위생사 72.4% (71명)가 '평가할 수 없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p<0.05$). 국가 실기시험의 문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지를 조사한 결과, 치위생(학)과 교수는 '치면연마'와 '칫솔질 교육'이 99.0% (100명)로 각각 가장 높았고 인상채득, 치주기구조작, 치면열구전색 98.0% (99명)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치과위생사에서는 '초음파 치석제거'가 86.7% (8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상채득 및 칫솔질 교육이 78.6% (77명) 순이었다($p<0.05$). 치위생(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습교육 여부는 '치면연마' 및 '칫솔질 교육'이 '교육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9.0% (100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인상채득'과 '치주기구조작', '치면열구전색'이 98.0% (99명)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실제 수행하는 다빈도 업무는 '인상채득', '모형제작', '초음파 치석제거', '진료 주의사항 설명'이 99.0% (97명)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 작성'과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기구세척'이 98.0% (96명) 순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로 현행 국가 실기시험에 대한 치위생(학)과 교수 및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인식과 평가 그리고 국가시험 문항으로의 중요도, 다빈도 수행업무 등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Benner PE: From novice to expert. Ame J Nur 28: 285-290, 1984.
2. Sim SH, Hwang YS: A study on the job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s and their job performance. J Korean Soc Dent Hyg 7: 153-166, 2007.
3. Kwon JY, Lee SY: Relationship of between task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ntribution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16: 302-309, 2016.
4. Kang YJ: Importance of job tasks, job training requirement and work satisfaction felt by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5: 1-13, 2005.
5. Kim EG, Lim SH, Kwon MY: Analysis of tasks and education needs for dental hygienist for development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J Dent Hyg Sci 14: 35-42, 2014.
6. Kim SH, Song KH, Kwon HS, et al.: Dental hygienist job analysis for item development for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licensing examination. J Educ Eval Health Prof 2: 59-74, 2005.

7. Won BY, Jang GY, Hwang MY, et al.: Evelopment of Korean standard dental hygiene curriculum proposal. J Korean Soc Dent Hyg 13: 1-12, 2013.
8. Hwang MY: Approach toward integrated curriculum for dental hygienist. J Korean Soc Dent Hyg 3: 59-72, 2003.
9. Kim SM, Kim JY, Park EB, et al.: Field manager's opinion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competency. J Dent Hyg Sci 14: 81-86, 2014.
10. Mun SJ, Noh HJ, Jeon HS, et al.: A six-year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performance in dental hygiene school and performance on the Korean dental hygiene licensing examination at Yonsei University. J Dent Hyg Sci 14: 332-341, 2014.
11. Ahn SY, Oh BK, Hwang SH, et al.: Some dental hygienist by career expectations regarding clinical work done in the field of business studies. J Korean Soc Dent Hyg 13: 543-552, 2013.
12. Nam YO, Ju UJ, Kim MJ: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dental hygienist practical examination. J Korean Soc Dent Hyg 13: 201-209, 2013.
13. Hwang MY, Won BY, Shin M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dental hygienist job awareness and view of college courses amongs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1: 939-949, 2011.
14. Yang SK: Curriculum components affecting the professionalism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11: 455-462, 2011.
15. Choi GY, Lee HS: Analysis of the education objectives of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from core competencies-based perspective. J Korean Soc Dent Hyg 12: 1049-1058, 2012.
16. Kim HY, Lee SJ: Diagnosis and direction of the competence-based educational model: based on the courses and effects. Korean J Gen Educ 10: 11-40, 2012.
17. Kim SH, Jang JH, Oh SH: A study for the improvement subjects of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licensing examination. J Dent Hyg Sci 9: 353-360, 2009.
18. Kim SH, Kim DK: Effects of problem-cased learning on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in dental hygiene students education. J Korean Acad Dent Health 33: 82-89, 2009.
19. Hwang MY: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ntal hygiene curriculums in comparison with the curriculum segment of the accrediting criteria for dental hygiene education. J Korean Soc Dent Hyg 18: 193-204, 2008.
20. Shin SJ, Son JH, Choi YK, et al.: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number of dental hygienist and their practice. J Dent Hyg Sci 7: 25-30, 2007.
21. Park MK: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national examination by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13: 103-116, 2011.
22. Bae SM, Shin SJ, Jang JH, et al.: Original article: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a dental hygiene science curriculum according to the dental hygienist competency. J Korean Soc Dent Hyg 16: 173-183, 2016.